

[기금 민관협력사업 2020년 신규사업 공모설명회]

2018.10.17.(수), 국제질병퇴치기금실

- **[질문 1]** 시민사회협력실 민관협력사업의 경우, 사업 착수 전에 M&E 기관과 지표나 PDM 조정 등을 논의하는데 기금 사업도 가능한지? 혹은 실무 협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인지 궁금함.
 - ☞ 사업 선정 후, △실무협의 단계와 △실행협의 단계(N-1년 4분기)가 있으므로 실제로 2번의 협의 기회가 있으며,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 협의단계에서 진행 가능
 - ☞ 기금실의 경우 별도의 M&E 기관을 선발할 계획은 없으며, 기금실 보건전문관 및 사업담당자와 함께 협의 희망

- **[질문 2]** 기초선 조사 등 현지 사전조사를 실무 협의단계에서 코이카 지원 예산으로 함께 할 수 있는지, 혹은 사업 활동(activity)의 하나로써 해야 하는지 궁금함.
 - ☞ 기금 예산 운용 상, 사업 착수 전에 해당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하고 선집행 후 보완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, 기관에 자체 자금으로 기초선 조사를 진행 필요

- **[질문 3]** 전년 대비 사업규모가 작아졌는데, 더욱 많은 단체에 지원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됨.
 - ☞ 그러함. 사업수행기관이 대규모 기관으로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, 보다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위해 기존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까지 대상 국가를 확대 2020년도 공모 추진 실시 중

- **[질문 4]** 반드시 해당 질환별 중점지원 대상국가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, 해당 국가에서 사업 시 유리한 것인지?
 - ☞ 반드시 해당 질환별 대상 국가에서만 사업을 해야함. 작년 기금 민관협력사업 공모에서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열어두었으나 사업 심사 시에 우선순위 국가 위주로 선정된 바 있음. 제안서 작성이 힘든 작업인 만큼 투입한 노력에 대비해서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금년도는 질환별로 대상 국가를 필수로 정하여 안내

- **[질문 5]** 한국인 직원 파견여부는 필수인지? 혹은 협의 하에 생략이나 부분 파견도 가능한지?
 - ☞ 필수는 아니나 권고사항임. 그러나 기존의 사업 운영에서 경험한 바로는, 한국인 직원이 있을 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. 끝.